

최근 經濟動向

李 揆 哲

I. 주요업종별 동향

□ 자동차

금년도 2/4분기인 6월중 자동차 생산은 극심한 수요부진과 부품수급의 애로 등으로 조업단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아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까지 겹쳐 전년동월대비 36.7% 감소한 159천대에 불과하였다.

내수면에서는 업계의 판매활동 촉진과 저연비·저가 차종의 판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심리 저하로 대부분의 차종이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6.0% 감소한 70천대에 그쳤다. 승용차의 경우 輕型 및 CDVs만이 전년동월대비 큰폭의 증가율을 보였을 뿐, 수요비중이 높은 중소형차의 판매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4.1% 감소한 53천대에 머물렀다. 商用차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버스가 58.8%, 트럭이 43.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50.9% 감소한 17천대에 그쳤다. 수출도 내수부진에 따른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융조달의 어려움과 동남아지역의 경기침체 및 기아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북미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9.0% 감소한 121천대에 불과하였다. 금년도 상반기 전체로는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5.0% 감소한 923천대에 머물렀고,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50.1%나 줄어든 361천대에 그쳤다.

內需는 전년동기대비 50.1%나 감소한 361천대에 그쳤으며, 수출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년동기에 비해 3.1% 감소한 619천대에 머물렀다.

◆ 자동차 ◆

(台, %)

	1997. 6월		1998. 6월		'98.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 生産	251,404	1.2	39.0	159,123	0.2	△36.7	922,650	△35.0
• 出荷	278,167	0.0	15.2	190,591	△2.4	△31.5	980,106	△28.1
(內需)	128,992	△5.8	△4.5	69,696	27.0	△46.0	361,454	△50.1
(輸出)	149,175	5.6	40.3	120,895	△13.9	△19.0	618,652	△3.1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전기·전자

6월중 전자산업 수출은 산업용전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과 가정용전자의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3,044백만달러에 그쳤으며, 상반기 누계도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18,700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산업용전자의 수출은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일부 국가로의 이동전화기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한 902백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부품 수출은 D램 減産에 따른 반도체 수출의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5.9% 감소한 1,710백만달러에 그쳤으며, 가정용 전자수출은 동남아로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2% 줄어든 432백만달러에 머물렀다.

한편, 최근 유럽의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물리계층 전문가회의는 유럽 표준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국내외 100여 업체가 공동 개발한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년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일본과 미국에서도 이 방식을 표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할 경우, 국내 통신산업의수출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반도체업계는 減産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 확대를 지속 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전 자 ◆
(백만불, %)

	1997. 6월			1998. 6월			1998.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3,564	2.9	10.1	3,044	△3.2	△4.6	18,700	△5.1
• 出荷	769	△0.3	14.2	902	26.7	17.3	4,520	1.1
(內需)	2,308	6.6	23.2	1,710	△13.9	△25.9	11,233	△5.1
(輸出)	487	△7.6	△29.7	432	△6.5	△11.2	2,887	△13.4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일반기계

6월중 국내 機械受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반적으로 發注가 부진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43.6% 감소하였다. 公共部門에서는 전력업이 △88.2%, 운수업 △68.3% 등으로

발주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67.4%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조립기계가 △46.1%, 조선 △40.2% 등과 비제조업의 운수·창고·통신업 △46.9%. 건설업(△45.8%)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39.9% 감소하였다.

6월중 일반기계의 수출은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의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한 615백만달러에 그쳤다. 기종별로는 농기계와 금속공작기계의수출이 각각 98.6%, 67.2% 증가한 반면, 운반하역기계, 화학기계, 섬유기계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다.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64.2% 줄어든 557백만달러에 머물렀으며, 기종별로는 거의 모든 기종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섬유기계와 화학기계의 수입감소가 각각 △95.3%, △79.5%로 크게 나타났다.

금년도 상반기 누계로는 국내 기계수주가 공공부문에서 △65.1%, 민간부문에서 △36.0%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41.9% 감소하였다. 또한 상반기중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3,652백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4.3% 감소한 3,99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4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93.3%나 감소하였다.

◆ 일반기계 ◆
(百萬달러, %)

	1997. 6월			1998. 6월			1998.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650	3.2	0.8	615	△15.2	△5.4	3,652	1.3

□ 철강

6월중 粗鋼 생산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률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9% 감소한 3,257천M/T을 기록하였고, 상반기 누

계로도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20,348천 M/T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轉爐 부문이 6월중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한 1,801천M/T을 기록하였고, 전기로 부문도 내수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한 1,456천M/T에 그쳤다. 철강재의 6월중 내수 판매는 후판이 造船의 建造 호조로 증가하였을 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철근, 형강, 강관 등은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건설 등 관련 수요산업의 불황으로 전월대비 3~5% 감소하였다.

상반기 전체로는 냉연강판이 전년동기대비 12.7%, 형강이 27.4% 감소하는 등, 후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부진하였다. 6월중 철강재 수출은 내수부진의 타개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증대노력으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708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상반기 누계도 4,295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7% 증가하였다.

◆ 철 강 ◆ (千 M/T, 백만불, %)

	1997. 6월			1998. 6월			1998.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462	△3.9	7.4	3,257	△7.2	△5.9	20,348	△1.5
輸 出	578	2.2	21.6	708	△3.3	22.4	4,295	31.7

註) :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 한국철강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完工된 설비의 추가 가동과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체 출하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로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월중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은 작년도와 금년에 完工된 설비의 추가가동으로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1,097천톤에 달하였다. 업계의 3대 유도품 평균가동률도 81%

로 전년동월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에틸렌의 가동률은 100%에 달하였다. 내수 出荷는 수요업계의 비축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소폭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가공업계의 부실화 및 관련산업의 경기부진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한 563천톤에 그쳤다.

수출은 내수감소에 따른 매출부진을挽回하고 적정가동률 유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물량기준에 있어서 전년동월대비 42.5% 급증한 543천톤에 달하였다.

한편, 상반기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능력의 증가와 수출물량의 증가로 물량기준의 출하성장세는 지속되었으나, 경기위축에 따른 가공업계의 수요부진으로 내수가 감소한 가운데 국제가격도 하락하여 전반적인 채산성은 惡化되었다. 상반기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2%, 수출은 50.4%의 신장세를 보인 反面, 내수용 出荷는 7.5% 감소하였다. 이러한 석유화학경기의 惡化에 대응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주력사업의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나머지 기업들도 장기적인 사업합리화를 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腐心하고 있다.

◆ 석유화학 ◆ (千M/T, %) (千M/T, %)

	1997. 6월			1998. 6월			1998.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生産	982	11.1	44.0	1,097	4.4	11.7	6,633	12.2
・出荷	977	5.7	21.3	1,106	0.5	13.2	6,623	13.1
(內需)	596	8.9	21.2	563	△2.1	△5.5	3,482	△7.5
(輸出)	381	0.3	21.3	543	3.0	42.5	3,141	50.4

□ 비금속광물

6월중 시멘트 내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와 건축허가 면적의 격감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한 4,785천 M/T에 그쳤다.

시멘트 생산도 생산능력이 증가하였음에도 내수감소에 따른 가동률 조정으로 전년동월대비 24.6% 감소한 4,063천M/T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내수감소에 따른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可視化되어 전년동월대비 3배정도 늘어난 110천M/T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내수감소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월 대비 95.2% 감소한 18천M/T에 머물렀다.

금년도 상반기 전체로는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생산, 내수 및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0%가 넘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생산은 22,458천M/T으로 전년동기대비 20.6%, 내수는 22,418천M/T으로 23.0%, 수입은 59천M/T으로 95.9%가 줄었으나 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인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 업체들의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342천M/T을 기록하였다.

한편 내수감소에 따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輸出單價 하락으로 輸出採算性이 악화 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반기중 시멘트수출(반제품인 클링커 포함)은 1,068천M/T, 29백만달러로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44.4% 증가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11.8%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감소한 것은 수출단가가 그만큼 하락하였기 때문인데, 지난해 상반기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4.6달

러 수준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64% 수준인 톤당 28.4달러에 불과하였다. 수출단가의 하락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구입처들의 수출가격 인하 요구와 공급과잉으로 동남아 생산업체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출가격 인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섬유(纖維)

6월중 국내 섬유수출은 의류의 지속적인 수출에도 불구하고 화섬직물, 편직물, 화섬F사 등의 감소폭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1,534 백만달러에 그쳤으며, 상반기 누계로도 8,458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섬유원료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인조섬유 부문의 조업단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9.0% 감소한 61백만달러에 머물렀으며, 섬유사는 주수출국인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의 경기부진에 따른 需要急減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9.6% 감소한 128백만달러에 그쳤다.

또한 직물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홍콩의 생산설비 증설과 경기침체 가속에 따른 수입 수요의 위축, 인도네시아·대만산 제품과의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한 811백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섬유제품은 원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과 내수 의류업체들의 수출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한 53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 및 EU로의 수출이 섬유제품 및 섬유원료를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5.9%, 13.0% 늘었으나, 직물과 섬유사의 주 수출시장인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8.7%, 25.8%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한편 6월중 內需는 전년동월대비 40%이상 격감하였고, 수입도 내수 시장의 침체심화와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 비금속광물 ◆ (千M/T, %)

	1997. 6월			1998. 6월			1998.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5,388	△3.9	2.3	4,063	△12.8	△24.6	22,458	△20.6
• 出荷	5,899	25.0	18.8	4,895	10.8	△17.0	22,761	△22.7
(內需)	5,860	3.0	19.2	4,785	9.9	△18.3	22,418	△23.0
(輸出)	39	△43.5	△15.2	110	74.6	182.1	342	△0.6

전년동월대비 40.6% 감소한 233백 만달러에 머물렀다.

◆ 석유화학 ◆ (US\$백만, %)

	1997. 6월			1998. 6월			1998.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1,663	△0.3	5.3	1,534	1.3	△7.8	8,458	△6.5
섬유원료	86	11.9	28.8	61	△6.2	△29.0	417	△12.9
섬 유 사	159	△5.9	34.3	128	△10.4	△19.6	897	△4.8
직 물	955	△4.0	3.7	811	△3.0	△15.1	4,635	△12.9
섬유제품	464	8.2	△2.2	534	13.5	15.2	2,509	8.8

□ 조선(造船)

6월중 국내造船業界의受注量은 현대중공업사의 수주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62.2% 감소한 14척 631천 G/T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한 84척 4,538천G/T을 기록하였다. 6월중 수주내용을 船種別로 보면 탱커가 4척 336천 G/T으로써 가장 많은 53.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Product Carrier 160천 G/T으로 25.3%, 컨테이너선이 79천 G/T으로 12.6%, 화학운반선이 56천 G/T으로 8.9%를 차지하였다.

건조량은 전년동월대비 202.6% 증가한 21척 1,242천 G/T에 달하였으며, 상반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4,203천 G/T을 기록하였다.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전년동월말대비 18.9% 증가한 302척 17,981천G/T으로 향

◆ 조 선 ◆ (千G/T, %)

	1997. 6월			1998. 6월			1998.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1,671	230.8	395.0	631	64.4	△62.2	4,538	△24.8
• 建 造	613	4.4	△43.3	1,242	249.4	202.6	4,203	29.0
• 受注殘量	15,127	8.6	20.3	17,981	△3.2	18.9	17,981	18.9

후 약 2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인 조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조선업체들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닥쳐올 불황기의 船價下落에 대비한 생존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 해운(海運)

6월중 乾貨物 운임지수 MRI는 전월의 216.3에서 9.3포인트 떨어진 207.0을 나타내어 년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Panamax 급을 중심으로 대기선박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선박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Cape-size級은 濠水域에서 수요에 비해 선복량이 과잉상태를 보임에 따라 침체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철강경기의 침체로 NKK(일본강관) 등 일본 제철소들의 임시 휴업에 따른 것이며, Panamax 급은 브라질의 선적 수요만 다소 있을 뿐, 대서양과 태평양 전 수역에서 물동량이急減하였다. 이에 따라 파나마운하水位가 39.5피트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걸프/일본 航路 운임은 톤당 1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Handy-size급은 새로운 수요없이 선복량의 공급과잉이 계속되어 운임하락도 지속되었고, 특히 철강재 수출물량의 증대로 강세를 보였던 극동지역도 대서양 수역의 선복량이流入됨에 따라 弱勢로 反轉되었다.

한편 탱커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前月の 80.2에서 11.7포인트 감소한 68.5를 기록하였다. VLCC 市場은 6월 초 PG 수역내에서 선복과잉 및 成約 거래의 감소로 하락세로 출발하여 6월 중순이후 저유가에 따른 일부 용선주들의 활발한 성약 활동 및 PG 수역의 대기선복량 감소로 강세로 돌아서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場勢는 弱勢를 면치 못한 실정이다.

Ⅱ. 대외거래(對外去來)

對 外 去 來

(억달러, 前年同期比, %)

1. 수출(輸出)

7월중 輸出은 아시아 시장의 침체지속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단가 하락, 자동차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 등으로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여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한 10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중 수출신용장(L/C)/來到는 석유제품(44.1%) 등 극히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전자기기(△50.1%), 섬유류(48.3%) 등 주요 품목들이 부진하여 전년동월의 59.2억달러에 비해 22.8% 감소한 45.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집계된 6월중 품목별 수출을 보면, 경공업 제품에 있어서 타이어·튜브(19.1%)등은 증

	97. 7월	97. 1~7월	98. 7월p _j	98. 1~7월p _j
· 輸出 (增減率)	118.1 (19.3)	770.6 (3.3)	102.0 (△13.7)	778.2 (1.0)
· 輸入 (增減率)	126.4 (△0.7)	870.6 (1.8)	71.2 (△43.7)	546.9 △37.2
· 輸出入差	△8.4	△99.9	30.8	231.3
· 輸出信用狀來到 (增減率)	59.2 (△4.2)	405.5 (△3.7)	45.7 (△22.8)	346.8 (△14.4)
· 輸入信用狀開設 (增減率)	113.9 (5.3)	765.7 (3.3)	49.5 (△56.5)	362.8 (△52.6)

가하였으나, 섬유류(△6.6%), 신발류(△24.4%), 여행용구(△18.5%)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2%의 감소로 27.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에 있어서는 철강이 18.9%, 선박이 71.4%의 증가를 보였으나, 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이 각각 △13.8%, △12.0%로 크게 떨어져 전년동월대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7. 6		97. 1~6월		98. 5월p		6월p		98. 1~6월p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및消費財	2.4	△6.8	14.0	△7.6	2.2	△5.1	2.3	△0.6	13.5	△3.6
原料및燃料	5.7	32.2	39.1	45.0	6.7	△0.1	6.3	11.1	44.0	12.4
輕工業製品	31.3	5.5	163.8	3.0	27.5	△9.5	27.4	△12.2	166.3	1.5
纖維類	15.8	4.6	86.2	3.5	14.5	△8.9	14.8	△6.6	80.8	△6.2
신발類	0.6	△20.0	3.4	△26.0	0.4	△26.7	0.4	△24.4	2.4	△28.6
타이어·튜브	1.3	△10.4	7.1	△11.5	1.4	0.4	1.5	19.1	7.9	12.6
重化學工業製品	84.6	10.5	435.6	△2.2	77.4	△0.8	82.1	△2.9	452.5	3.9
化工品	7.3	39.6	40.4	16.9	6.8	△3.6	6.8	△6.3	42.9	6.2
金屬製品	7.1	20.4	41.4	14.8	8.9	28.0	8.4	18.9	51.2	23.7
機械類	13.6	5.2	79.4	7.9	13.5	△1.4	12.0	△12.0	76.0	△4.3
電氣·電子製品	23.7	22.9	122.4	△3.0	21.6	△2.2	20.4	△13.8	124.3	1.5
自動車	13.2	36.6	59.4	11.7	10.8	△11.6	9.9	△24.6	52.7	△11.3
船舶	7.8	△17.9	25.5	△29.1	4.9	9.2	13.4	71.4	37.7	47.8
統 計	123.9	9.6	652.6	0.9	113.8	△3.1	118.2	△4.6	676.3	3.6

註) 관세정 분류기준에 의함

비 2.9% 감소한 82.1억달러를 나타내어 전체 수출은 118.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6%의 감소를 보였다.

2. 수입(輸入)

7월 중 輸入은 消費, 投資 등 내수위축의 심화 및 금융경색의 지속에 따른 수입 L/C의 개설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의 126.4억 달러에 비해 43.7% 감소한 71.2억달러에 머물렀다.

7월 중 수입신용장(L/C)의 개설은 석유제품(△56.4%), 전기전자기기(△50.8%), 기계류(△67.1%) 등 모든 품목에서 前月の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의 113.9억달러에 비해 56.5% 감소한 49.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6월중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소비재는 소비위축,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가격(원화표시)의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38.2% 감소한 8.2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원자재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화학제품(△31.4%), 철강재(50.5%)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1.6% 감소한 4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본재의 경우도 설비투자 위축에 따라 기계류(△61.9%), 정밀기기(32.1%)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3.0% 감소한 27.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3. 地域別 輸出入

6월중 지역별 수출을 보면, 對先進國 수출은 EU로의 수출이 10.0%로서 증가하였으나, 미국에 대한 수출은 △6.0%의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일본으로의 수출도 △27.7%나 크게

品 目 別 輸 入

(通關基準, 억달러, 前年同期比, %)

	97. 6月		97. 1~6月		98. 5月p		6月p		98. 1~6月p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13.3	△7.7	80.5	△0.2	7.2	△44.8	8.2	△38.2	46.7	△41.9
穀 物	2.7	△19.5	13.2	△19.0	2.1	△6.5	1.9	△30.8	12.0	△9.6
直接消費財	4.0	△2.7	24.0	2.9	2.4	△43.3	2.5	△37.5	14.5	△39.6
耐 久 財	4.4	△6.7	28.1	4.8	2.0	△55.2	2.8	△36.3	14.4	△48.8
非 耐 久 財	2.2	△1.2	15.1	7.2	0.8	△64.3	1.0	△52.5	5.9	△61.2
原料 및 燃料	61.4	4.6	390.0	4.7	41.4	△34.1	42.0	△31.6	257.8	△33.9
原 油	13.0	37.8	90.8	45.8	8.6	△29.4	9.5	△27.1	60.0	△33.9
石 油 製 品	2.0	△34.1	18.4	△25.9	1.6	△43.7	1.9	△5.3	13.3	△27.6
輕工業原料	4.6	2.5	28.1	△9.9	2.9	△38.3	2.9	△37.5	17.3	△38.3
化學製品	7.4	0.1	44.2	1.3	5.0	△33.1	5.1	△31.4	31.2	△29.4
鐵 鋼 材	4.7	△16.9	28.3	△22.5	2.6	△49.0	2.3	△50.5	17.2	△39.5
資 本 財	48.1	9.1	273.7	△0.2	28.0	△40.3	27.4	△43.0	171.1	△37.5
機 械 類	18.5	△2.2	105.2	△11.0	8.2	△57.1	7.0	△61.9	48.9	△53.5
電氣·電子	21.2	24.7	116.7	14.1	14.8	△25.7	16.2	△23.7	92.0	△21.2
輸 送 裝 備	3.2	△1.9	18.4	△14.8	1.7	△20.4	1.2	△63.8	10.9	△40.9
總 計	122.9	4.8	744.1	2.3	76.6	△37.6	77.7	△36.8	475.7	△36.1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함

地域別輸出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7.6月	97.1~6月	98.5月p	6月p	98.1~6月p
對先進國	輸出	56.6	284.7	52.9	55.4	323.0
	(增減率)	(18.1)	(△3.3)	(2.3)	(△2.1)	(13.4)
	輸入	81.5	465.6	47.5	48.5	287.7
	(增減率)	(3.1)	(△3.0)	(△40.4)	(△40.5)	(△38.2)
	輸出入差	△25.0	△180.9	5.5	6.9	35.3
美國	輸出	20.0	101.5	19.5	18.8	110.1
	(增減率)	(10.9)	(△10.0)	(8.9)	(△6.0)	(8.5)
	輸入	26.4	160.0	16.9	18.3	101.4
	(增減率)	(3.5)	(△2.4)	(△38.9)	(△30.9)	(△36.6)
	輸出入差	△6.5	△58.5	2.6	0.5	8.7
日本	輸出	13.1	73.8	9.7	9.5	61.6
	(增減率)	(△1.9)	(△7.8)	(△22.2)	(△27.7)	(△16.6)
	輸入	24.8	144.6	13.6	13.3	84.6
	(增減率)	(△2.1)	(5.4)	(△43.5)	(△46.4)	(△41.5)
	輸出入差	△11.7	△70.8	△3.9	△3.8	△23.0
EU	輸出	15.4	77.6	14.9	17.0	88.0
	(增減率)	(22.2)	(△4.7)	(△1.6)	(10.0)	(13.5)
	輸入	16.9	96.2	9.4	9.5	58.8
	(增減率)	(2.2)	(△4.5)	(△45.2)	(△43.6)	(△38.9)
	輸出入差	△1.5	△18.6	5.5	7.5	29.2
對開途國	輸出	67.4	367.8	60.9	62.9	353.2
	(增減率)	(3.4)	(4.4)	(△7.4)	(△6.7)	(△4.0)
	輸入	41.3	278.5	29.1	29.2	188.0
	(增減率)	(8.2)	(12.5)	(△32.5)	(△29.4)	(△32.5)
	輸出入差	26.0	89.3	31.8	33.7	165.1
東南亞	輸出	31.7	182.6	26.1	23.0	150.7
	(增減率)	(7.1)	(3.7)	(△18.8)	(△27.3)	(△17.5)
	輸入	12.4	82.9	8.0	9.0	56.7
	(增減率)	(△1.1)	(5.2)	(△35.9)	(△27.6)	(△31.6)
	輸出入差	19.2	99.7	18.1	14.0	94.0
中國	輸出	11.5	65.2	11.5	10.5	62.8
	(增減率)	(22.2)	(25.3)	(△3.3)	(△8.5)	(△3.6)
	輸入	8.4	48.5	5.0	4.9	33.0
	(增減率)	(16.4)	(19.2)	(△43.1)	(△41.0)	(△32.1)
	輸出入差	3.1	16.7	6.5	5.5	30.0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하였으며, 對開途國 수출도 동남아 △27.3%, 중국 △8.5% 등으로 수출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하였다.

한편 지역별 수입을 살펴보면 對선진국 수입은 對미(△30.9%), 對일(46.4%), 對EU(△43.6%) 등을 중심으로 △40.5%나 크게 감소하였으며, 對개도국 수입의 경우도 對중국(△41.0%), 對동남아(△27.6%) 등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9.4%의 큰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6월중 수출입차는 對선진국 흑자가 6.9억달러로 지난달의 5.5억달러보다 증가하였고, 對개도국 흑자도 33.7억달러로 전월의 31.8억달러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인 흑자규모는 전월의 37.2억달러보다 증가한 40.6억달러에 이르렀다.

4. 국제수지(國際收支)

6월중 우리나라의 經常收支는 수입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34.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흑자규모는 전월의 42.6억달러보다는 다소 줄었다.

경 상 수 지 (억달러)

	97.6月	97.1~6月	98.5月	6月p	98.1~6月p
經常收支	△2.2	△100.8	42.6	34.3	223.8
商品收支	3.5	△62.1	42.5	34.8	213.1
輸出(FOB)	124.5	670.2	117.7	110.1	675.1
輸入(FOB)	121.0	732.2	75.2	75.3	462.0
서비스收支	△3.9	△25.1	2.7	0.9	9.1
收入	21.4	125.6	20.8	21.7	121.7
支給	25.4	150.7	18.1	20.8	112.6
所得收支	△1.7	△12.1	△4.5	△3.7	△17.6
經常移轉收支	△0.1	△1.5	1.9	2.3	19.5

상품수지는 수출이 중화학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1.5% 감소한 110.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 전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37.7% 감소한 75.3억달러를 기록하여 34.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서비스收支는 0.9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운수수지가 화물운임 및 운항경비 지급 등이 증가하여 1.9억달러로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여행수지가 여행수입의 증가 및 유학경비 지급감소로 2.0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기타서비스 수지는 특허권사용료 등, 분기말의 로열티 지급증가 등으로 2.9억달러의 적자로 적자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소득수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6월중 자본수지는 IMF자금과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의流入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채권 및 원유 등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의 상환증가 등으로 0.5억달러의 流出超를 기록하였다.

투자수지는 0.4억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수지중 내국인 투자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단기외화대출 회수 및 해

資 本 收 支 (억달러)

	97.6月	97.1~6月	98.5月	98.6月p	98.1~6月p
資本收支(A+B)	19.3	106.1	△0.6	△0.5	11.1
A 投資收支	19.8	109.4	△3.5	△0.4	7.7
直接投資	△1.9	△7.3	2.0	0.0	△2.0
證券投資	30.2	84.2	△11.6	△20.5	43.6
其他投資	△8.5	32.5	6.0	20.1	△33.9
資產(內國人投資)	△14.4	△69.7	△6.0	16.3	△8.8
直接投資	△4.4	△21.5	△1.4	△2.8	△15.0
證券投資	△0.5	△5.9	△6.3	△4.8	1.5
其他投資	△9.6	△42.3	1.7	23.8	4.7
(貸出)	△1.4	△6.3	△1.0	8.7	△2.9
負債(內國人投資)	34.2	179.1	2.5	△16.6	16.6
直接投資	2.5	14.1	3.5	2.7	12.9
證券投資	30.6	90.1	△5.3	△15.7	42.1
(外國人株式資金)	8.1	21.7	0.0	△1.9	29.3
其他投資	1.0	74.8	4.3	△3.7	△38.5
(借入)	△3.9	62.1	7.3	△4.4	23.4
B 其他資本收支	△0.5	△3.3	2.9	△0.1	3.4

외예치금의 인출 등으로 16.3억달러의 유입초를 기록하였고, 외국인 투자는 IMF 자금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채권상환 및 원유

단기차입금 등의 상환으로 16.6억달러의 유출초를 나타냈다.

